

제4과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을 붙드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생애 기간 내내 주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부름 받은 제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을 붙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 때, 제자들은 ‘사명’을 붙들고 삽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 때,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부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 것인지 깊이 있는 묵상과 적용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 ()

주님은 제자 삼는 일에 전력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제자와 군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자훈련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故옥한흠목사님이십니다. 선교단체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제자훈련을 교회에 접목하고, 한국교회에 ‘제자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기에 ‘제자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강단을 강타했던 ‘제자훈련’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마치 유행지난 옷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유행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목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유행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자훈련’을 ‘코스웍’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됨을 위한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훈련리스트 중 하나 정도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수료했어!!라고 자랑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코스웍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제자됨’을 위한 훈련입니다. 즉 제자로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제자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됨이 아닌, 교회 부흥의 수단이나 자기과시의 목적으로 치루어 버린 코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자훈련’에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자도는 목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삶의 근간입니다.

2. ()의 차이

주님은 당신의 사명 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제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군중과 제자의 차이를 살피면 분명해집니다.

1) ()의 차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인 사람들을 마다하지는 않으셨지만, 모인 수에 연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군중들과 제자들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그들이 모여든 목적'에 있습니다. 즉 군중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따랐습니다.

① ()을 받으려고

군중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등등 즉 자신을 위해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누가복음 6:17)

→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철야기도 하신 후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 때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12제자를 제외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병 고침과 귀신들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군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② ()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김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16-20)

→ 비록 배운 것은 없고, 신분적으로는 비천할지라도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병 고침이나, 먹을 것을 위해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17-22)

→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으로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부르신 청년, 그가 만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과 견줄만한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에 순종했고, 젊은 나이에 부자 관원이 되었을 만큼 능력도 있고, 그 정도 가졌다면 교만할 만도 한데,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영생’에 관심을 갖는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주님도 그런 그를 ‘사랑하사’ 제자로 부르십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귀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재물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중과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의 차이

제가 시작하면서 제자도가 목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근간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방종교의 신앙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과 자신의 인격 수양이 그들이 신앙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명을 위한 순종’ 즉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마치 이방종교의 신앙의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즉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오고 신앙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일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제자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도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어서 교회에 오고 주님을 믿는다면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처음 교회에 올 때는 그렇게 왔을지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즉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신앙해야 합니다.

3. () 따르라

비록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나, 그들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따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일차적으로 배와 그물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랐지만,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은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 버린 것과 ()

분명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마가복음 10:28)

→ 젊은 부자 관원이었던 청년이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의입니다. 욕심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41.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마가복음 10:35-37, 41)

→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구한 것은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40을 받고 팔아버린 이유도, 그가 생각한 메시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의’는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바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1-33)

→ 제자로 사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구함이 오로지 먹을 것, 마실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4. ()

이제 제자의 삶의 모습은 분명해집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 제자들의 삶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과거에 비해 교회의 규모도 커지고, 성도의 수도 늘었지만, 오직 ‘사랑’만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교회 건물도 보잘 것 없고, 성도들의 수도 적고, 성도들의 삶의 수준도 지금만 못했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제자됨은 오직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2서 1:5-6)

주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32-36)

사랑은 ‘손해 보는 것’입니다. 다박다박 우겨서 이익을 챙기면 ‘사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 알면서도 손해 보면 그것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손해 보며 사십시오. 그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이익입니다.

□ 목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